

## 부모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대학생들의 부모기대에 대한 경험: 합의적 질적연구\*

이도형 김예은 유소영 김명선 박미정 연규진<sup>†</sup>  
서강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이 부모의 기대에 대해 어떻게 경험하고 반응하는지를 탐색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성인 진입기에 대학생이 인식하는 부모기대와 이에 따른 심리적 적응을 탐색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6개 대학의 5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103명의 대학생 중 부모기대부응척도로 부모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하위 30%를 선별한 후, 삶 만족도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로 각각 8명씩 총 16명을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의 부모기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부모의 기대', '부모의 태도와 표현방식', '부모의 기대로 인한 영향과 반응', '부모의 기대에 대한 대처방식'의 4개 영역과 26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 맥락에서 성인 진입기에 나타나는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심리적 적응 방안 및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인 진입기, 부모-자녀 관계, 부모기대 부응, 삶 만족도, 합의적 질적 연구

\* 본 연구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8015258).

† 교신저자 : 연규진,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다산관 336호  
Tel : 02-705-8327, E-mail : kjyon@sogang.ac.kr

오늘날 한국은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하락을 경험하고 있으며,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치인 상태이다(통계청, 2017). 이로 인해 청년들이 직장을 갖는 시기가 늦춰졌을 뿐 아니라 직장을 가져도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 하는 ‘갱거루족’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진 청년들의 상황이 부각되며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학문적으로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년기는 Erikson(1959)이 제안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중 성인기에 속하는데, 이 시기의 발달 과업은 주체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원하는 직업 및 진로를 탐색하며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 되고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지금의 청년기는 자아정체성, 진로, 인간관계 등이 잠정적이고 불안정한 청소년기의 모습뿐만 아니라 부모의 통제와 제약을 벗어난 성인기의 모습을 모두 나타내는 독특한 양상이 나타난다. 이에 Arnett(2000)는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는 새로운 발달 단계를 제안하였다. Arnett(2000)에 의하면, 기존의 성인이 하나의 직업에 착수하며 결혼하고 부모가 되던 것과 달리, 성인 진입기의 청년들은 진로와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특성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성인 진입기에는 부모에게 맡기던 결정권이나 책임을 본인이 점진적으로 맡으면서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Arnett, 2006).

성인 진입기의 독립과정에 있는 자녀는 여

전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 관련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양육 태도를 가질수록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아졌으며(Kins, Beyers, Soenens, & Vansteenkiste, 2009), 부모의 정서 및 정보적 지지는 성인 진입기에 있는 자녀의 진로 발달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ultheiss, Kress, Manzi, & Glasscock, 2001). 반면 부모와 자녀의 상호적 의사소통 수준이 낮을 경우 자녀가 심리적 어려움을 더 경험하였고(Agliata & Renk, 2008), 부모의 기대와 그 기대에 대한 자녀의 수행 차이가 클수록 자녀가 심리적으로 더 부적응한 것으로 나타났다(Agliata & Renk, 2009).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와 자녀의 분리와 독립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비롯된 것인데, 부모와 자녀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강조되는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부모가 성인 진입기 자녀에게 더 큰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부모 자녀 관계는 동아시아권 전반에서 나타나는 집단주의적 특징을 지닌다. 집단주의 문화는 유교적 가치에 영향을 받아 ‘나’보다 ‘타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타인과의 조화를 강조한다(조공호, 2012). 그래서 성인 진입기 단계에서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심리적 적응 양상은 독립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문화를 지닌 서구권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유교 문화에서 중시하는 몇 가지 특징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조직에서는 권위자의 영향이 강하고(최상진, 김의철, 홍성윤, 박영숙, 유승엽, 2000), 가족 내에서는 자녀가 가족의 이름을 높이고 부모의 뜻을 따르고 잘 모셔야 한다는 효(孝)와 같은 덕목을 중시한다(서선희, 1998).

이러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모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고 있다고 여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영신, 김의철, 안자영, 이임순(2014)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효 개념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학업에 충실할 때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 효를 행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학업에 소홀할 때 불효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불효했다는 생각이 들 때, 부모에게 미안함과 죄송함을 느끼거나 심리적 불편으로 인해 불안해하기도 했으며, 불효자라는 생각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는 등의 자기반성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즉, 부모에게 ‘불효(不孝)’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자녀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를 탓하면서 삶의 불만족감을 경험하였다(박영신 등, 2014;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Masterson(1985)에 의하면 부모의 과잉 기대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으로, 집단주의 문화권의 부모-자녀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에서 독립을 강조하는 자녀 무시가설(parental devaluation hypothesis; Kernberg, 1975; Kohut, 1977)보다, 자녀과잉보호가설(parental overvaluation hypothesis; Millon, 1981)이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자녀 무시가설은 Kohut과 Kernberg가 제안한 가설로서, 초기 아동기 시절 냉정한 부모로부터 받은 거절과 양육 포기가 자녀의 자기애적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며, Millon의 자녀과잉보호가설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

게 많은 애정을 쏟고 부모가 주는 그러한 비현실적 강화가 자녀를 자기애적 성격으로 발달하게 한다는 가설이다. Masterson(1985)은 이 두 가지 가설을 비교문화적 관점으로 분석했는데, 서양은 부모와 자녀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자기애적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무시가설에 가까운 반면, 동양은 과잉기대와 밀착으로 자기애적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잉보호가설에 가깝다고 제안하였다. 즉, 집단주의 문화는 부모와 자녀가 상당히 밀착되어 있고 상호의존적 관계의 특성이 있으므로(조공호, 2012), 부모가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보고 독립을 강조하기보다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기 쉽다. 부모와 같은 중요한 대상의 기대는 자녀가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처럼 느끼는 내적 자기상을 만들고, 이를 통해 형성된 의무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가 자녀의 실제 자기와 불일치될 경우 불안이나 우울, 죄책감, 수치심 등의 심리적 부적응이 나타날 수 있다(Higgins, 1989). 또한 자녀가 부모의 기대 부응에 몰두한 나머지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부모로부터 독립된 개인이라는 느낌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Masterson(1985)의 주장과 국내의 효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성인 진입기 단계에 있는 한국의 자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부모의 기대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성인 진입기라는 발달 단계나 한국문화가 지닌 독특한 부모-자녀 관계를 고려할 때, 부모의 기대가 성인 진입기에 있는 한국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적으로 탐색한 국내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부모 기대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모의 학업 기대로 인한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김종백, 김준엽, 2009)나 과잉기대와 같은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박선영, 조용주, 2011)가 있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지만, 주로 학업이나 진로와 같이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들이었고(이상희, 2012;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 부모의 전반적인 기대와 그 기대에 대한 자녀들의 인식 혹은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부모 기대를 주제로 성인 진입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Wang과 Heppner(2002)의 부모기대 부응 척도(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 Inventory, LPEI) 개발 연구를 들 수 있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심리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없었기에, LPEI는 부모의 기대와 부응 정도를 측정하여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구체적으로 LPEI는 부모가 기대하는 영역들을 인격적 성숙(Personal Maturity), 학업적 성취(Academic Achievement), 연인관계(Dating Concern)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자녀가 각 영역별로 부모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Wang과 Heppner(2002)의 연구 결과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할수록 부정적인 정서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진입기의 대학생 자녀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집단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척도로 집단주의 문화권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였다는 성과가

있지만, 부모 기대의 영향이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성인 진입기의 대학생 자녀들이 겪는 경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탐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과정을 질적으로 탐색한 김은정(2015)은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지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려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집단주의 문화에서 드러나는 부모의 기대와 그 기대에 대한 자녀의 경험적 특성을 세부적으로 탐색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집단주의 문화권의 독특한 맥락에서 대학생 자녀들이 부모 기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기대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인 진입기의 대학생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기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적 경험을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진입기인 5학기 이상 재학 중인 대학생 자녀들 중 부모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부모기대에 부응하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별다른 불편감이 없을 수 있으므로 기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Wang & Heppner, 2002), 부모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생은 심리적 불편감이 커지므로(박영신 등, 2014; Wang & Heppner, 2002) 부모 기대에 대한 인식이 보다 더 명확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덧붙여 저학년 보다 졸업에 가까운 고학년 대학생이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로부터 더 많은 기대를

받을 수 있으므로(김홍석, 2013; 박미진 등, 2009) 부모 기대에 대한 인식과 부담이 더 명확할 수 있는 고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는 가운데에도 적절한 대처기제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잘 적응하는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김혜정, 백용매, 2006) 적응 수준에 따라 부모 기대를 인식하는 경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측하였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드러나는 부모 기대에 대한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삶의 적응 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진입기인 대학생 자녀들 중에서 부모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고학년 대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모집하였고,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대상자들을 선별하여 그들의 경험을 세부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대학생 자녀는 부모가 자신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둘째, 부모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대학생 자녀는 그러한 부모의 기대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영향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 방 법

### 연구참여자 모집방법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6개의 상위권 대학교에 재학 중인 고학년 학생들 중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각 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내 커뮤니티 온라인 게시판에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 의사를 표명한 103명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LPEI(Wang & Heppner, 2002)와 삶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가 포함된 사전설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 기준에 적합한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총 16명의 대학생이 인터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약 1시간의 인터뷰에 참여하고 5천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제공받았다.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연구 참가자의 특성은 척도설명 이후에 기술하였다.

### 측정 도구

#### 부모기대부응

참가자들의 부모기대부응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Wang과 Heppner(2002)가 개발한 부모기대부응척도(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 LPEI)의 한국판 버전(Lee, Lee, & Yon, 2017)을 사용하였다. 부모기대부응 척도(이하 LPEI)는 3가지 척도인 지각된 부모의 기대(Perceived Parental Expectation: PPE)와 지각된 자기수행(Perceived Self Performance: PSP),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 LPE)로 이루어져 있으며, PPE와 PSP는 인격적 성숙(Personal Maturity), 학업적 성취(Academic Achievement), 연인관계(Dating Concern)라는 3요인 32개의 문항(예, 부모님은 내게 남들보다 학업적으로 우수하기를 기대하신다)에 각각 다른 지시문을 제시하여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PPE의 경우, “현재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기대를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지시문을 제시하고, PSP의 경우, “현재 당신은 얼마나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까?”라는 지시문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참가자는 총 64번의 응답을 하며, 두 척도 모두 리커트 6점 척도(1=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6=매우 많이 기대하신다)로 평정한다. LPE는 각 문항의 PSP값에서 PPE값을 뺀 후 전체 평균을 낸 값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LPE값이 높을수록 부모기대에 부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Wang과 Heppner(2002)의 연구에서 척도의 요인별 내적 신뢰도는 PPE가 각각 .91, .85, .85였고 PSP는 각각 .87, .81, .76이었으며 LPE는 각각 .89, .84, .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요인별 내적 신뢰도는 PPE가 각각 .86, .84, .83이었고 PSP는 각각 .80, .75, .76이었으며 LPE는 각각 .82, .77, .70으로 나타났다.

### 삶 만족도

삶 만족도는 Diener 등(1985)이 개발한 삶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삶 만족도 척도는 총 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이상에 가까운지를 평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예,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리커트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4=중간이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고 역문항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는 최소 5점에서 최대 35점 사이에 분포한다. Pavot과 Diener(2009)는 삶 만족도 척도의 값이 5~9 사이인 경우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이고, 10~14 사이이면 불만족, 15~19 사이

는 약간 불만족, 20 이면 만족도 불만족도 아닌 중립상태, 21~25 사이는 약간 만족, 26~30 사이는 만족, 그리고 31~35는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로 범위를 정하였다. Diener 등(1985)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였다.

### 연구참여자 선별 기준 및 특성

전체 설문 응답자 103명의 부모기대부응수준 평균은 -0.44이고 표준편차가 0.81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하위 30%의 사람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삶 만족도에 따른 부모기대 인식 경험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삶 만족도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로 각각 8명씩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중립상태인 20점을 기준으로 삶 만족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구분하였으며, 인터뷰에 참여한 참가자들 중 삶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평균은 25.25이고 낮은 집단의 평균은 13.3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총 16명의 대학생이 인터뷰에 참가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은 22.88세이고, 남성이 5명, 여성이 11명이었다.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인터뷰 절차 및 내용

인터뷰는 부모기대 부응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기반으로 부모님으로부터 고학년 대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기대와 그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 그리고 그러한 상호작용이 현재 참가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을

표 1.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례	성별	연령	학교	학기	전공	부모기대부응 (백분위)	삶 만족도
1	남	25	A	8	컴퓨터 공학	-1.5(90%)	높음(29)
2	여	24	B	6	중어중문	-0.84(71%)	높음(27)
3	여	24	B	8	경영	-1.81(95%)	높음(26)
4	여	20	C	5	심리	-1.25(87%)	높음(25)
5	여	21	B	5	심리	-0.91(76%)	높음(25)
6	여	23	B	8	미국문화	-2.84(100%)	높음(24)
7	남	27	B	8	철학	-0.84(72%)	높음(24)
8	남	22	B	5	심리	-0.97(79%)	높음(22)
9	여	22	B	8	정치외교	-0.88(74%)	낮음(17)
10	여	23	D	7	국어국문	-1.66(93%)	낮음(17)
11	여	20	E	5	심리	-1.47(89%)	낮음(17)
12	남	23	B	5	심리	-1.09(83%)	낮음(14)
13	여	22	C	9	행정	-0.84(73%)	낮음(12)
14	여	24	F	8	중어중문	-1.56(92%)	낮음(11)
15	남	24	B	6	심리	-1.25(85%)	낮음(10)
16	여	22	B	6	커뮤니케이션	-2.06(96%)	낮음(9)

두고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이 토의하여 5개의 주요 질문과 구체적인 면접 프로토콜을 구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인터뷰에 앞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참가자들이 답변하기에 어렵다고 느낀 질문에 대하여 표현을 변경하거나 세부적인 질문을 만들었으며, 질문은 달랐으나 응답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일부를 삭제하고 질문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이에 완성된 최종 5개의 주요 질문은 표 2에 제시되었다. 인터뷰가 실시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주요 질문을 이메일로 전달하여 질문과 관련하여 미리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였으며, 연구 윤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여 관련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참가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되었고, 익명성을 보장하고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례번호를 부여하고 녹취록을 작성한 후 분석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참가자가 편안하게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을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인터뷰시간은 평균 58분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진행되어 기본적으로는 프로토콜을 따르되 응답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경우 면접자가 자유롭게 추가적인 질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는 상담전문가 자격을 소지한 박사과정

표 2. 인터뷰 주요 질문

질문번호	질문내용
1	부모님은 당신에게 어떤 것들을 바라시나요?
2	부모님이 당신에게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3	부모님께서 그런 기대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4	부모님이 기대를 표현하실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나요?
5	부모님의 기대가 당신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생과 평균 1년 정도의 상담 실습 경험이 있는 석사과정생 4명에 의해 진행되었다. 면접자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뷰 실시 전 모든 면접자가 한 회의 예비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예비 인터뷰의 축어록을 분석하여 연구 방향성에 맞도록 질문과 인터뷰 스타일에 대한 합의적 검토를 거쳤다.

#### 분석방법

본 연구는 Hill, Thompson과 Williams(1997)가 개발한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CQR의 분석 과정은 복수의 연구자들이 자료의 분석 및 분류에 대한 반복적인 합의를 거친 후 감수자에게 감수 받은 내용을 토대로 연구팀이 다시 합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진행된다(Hill et al., 1997). 이러한 합의 과정은 자료 해석에서 관점의 편향성과 의미 있는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CQR은 연구 참여자의 반응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지 않고 참여자의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탐색하는 발견지향적인 방법(Hill et al., 1997)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 개인의 경험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방법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부모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는지 그리고 대학생 자녀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 나가는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CQR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연구자의 기대 및 처리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 및 합의를 위해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CQR 연구 진행경험이 있는 박사과정생 1명과 석사과정생 4명으로 연구팀이 구성되었다. CQR 연구를 진행하고 감수한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 전공 교수 1명이 분석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내부감수자 역할을 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평정자들 간 학위과정과 연구경험의 차이로 인한 합의 불균형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CQR 방법론을 함께 검토하면서 분석방법과 합의과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예비 인터뷰 데이터로 예비분석을 실시해보았다. 그리고 합의과정에서 상위 학위과정자나 특정인이 의견을 주도하지 않도록 전체 구성원이 번갈아가면서 논의하고 전체 구성원의 다수 의견을 중심으로 합의해 가는 방식으로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Hill과 동료들(2005)의 제안에 따라, 연구팀은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자 각자가 연구 결과에 대한 기대를 기록하고 개인의 편향이

자료의 분석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 연구자는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에게 가지는 기대에 대해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가질 수 있는 압박감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 반면에 연구자 자신이 가진 부모님의 기대표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참가자의 긍정적 대처방식을 억압으로 치부하고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있음을 나타냈다. 다른 연구자는 부모의 기대에 대해 부응하거나 단절하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만이 있을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편향성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할 기술훈을 표현하였다. 또 다른 연구자는 부모님의 기대에 순응하며 살아오면서 답답함을 느껴왔기 때문에, 자신처럼 부모의 기대에 순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느끼고 순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부러움을 느낀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어 살다가, 갈등을 겪은 후에 부모님의 기대를 따르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 한 다른 연구자도 부모님의 기대를 따르며 사는 참가자들을 보면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부모기대 순응을 답답하게 느낀 두 연구자 모두에게는 인터뷰 진행 및 분석시 부모 기대에 따르는 행동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함을 논의 하였다. 더불어 부모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강요하신 적이 없다고 느꼈던 한 연구자는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과 다르게 부모의 기대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을 겪고 있는 참가자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표현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연구자가 경험한 부모님과 관계, 부모님에

대한 태도 등이 인터뷰 및 분석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 진행 과정 중 지속적으로 토의했고, 분석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의 과정에서 각자의 기대와 편향을 성찰하도록 권고하였다.

영역(Domain), 핵심내용(Core idea)의 코딩 및 교차분석(Cross analysis)

연구팀은 각자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축어록으로 작성하였고 총 16개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유사한 주제로 분류하기 위해 Hill과 동료들(1997)의 지침을 바탕으로, 인터뷰 질문에 따라 축어록을 5개의 영역으로 잠정적으로 구분하였고, 인터뷰 내용의 흐름 안에서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요약하는 핵심내용 코딩 작업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팀은 3개의 녹취록을 함께 읽었고 CQR에 대한 경험이 있는 내부 감수자로부터 핵심내용을 코딩하는 방법을 교육받았으며, 그 후에 연구자 개개인이 코딩하는 방식에 대하여 합의 및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나머지 녹취록은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자가 핵심내용을 코딩한 후 1명 혹은 2명의 다른 구성원이 코딩 내용을 확인 및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핵심내용을 수정하고 범주를 구성하면서 범주들에 따라 영역을 새롭게 만들거나 수정 및 재조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핵심내용 코딩 및 영역 구분 과정에서 팀원들 간에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팀원이 의견을 개진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부 감수자가 확인하고 감독하였다.

교차분석에서는 각 사례별로 분석된 핵심내용 중 유사한 핵심내용들을 묶어 범주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팀은 각자 2사례의 내용을 검토하여 범주로 구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 범주 목록을 도출해 내었다. 그 후 기존의 범주 목록으로 범주화를 실시해보고, 범주 목록을 수정 및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범주화 과정에서도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 연구자가 범주화한 사례는 1-2명의 다른 연구자가 검토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 또한 내부 감수자가 확인하고 감독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범주를 토대로 전체 사례에서의 빈도를 계산하였는데, 삶 만족도에 따라 부모님과과의 상호작용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삶 만족도 상하집단에 따른 하위 집단의 빈도도 추가적으로 계산하였다. 전체 자료 분석 과정은 약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 감수자 및 감수과정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분석 과정에서 1명의 내부 감수자에게 감수를 받은 뒤 잠정적인 연구 결과에 대하여 1명의 외부 감수자에게 감수를 받았다. 외부 감수자는 다른 대학에 재직 중이며, 상담전공 박사로서 CQR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선정하였다. 감수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잠정적으로 완성된 영역과 범주 그리고 범주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 전체 영역 및 범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이를 고려하여 연구팀의 합의 하에 일부 범주명을 수정하거나 유사한 범주들을 통합시켰다. 또한 한 영역이 전체 범주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역의 명칭을 수정하였고, 일부 범주들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영역으로 이동시켰다.

## 결 과

본 연구는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4개 영역과 2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Hill과 동료들(2005)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 참여자 전체 인원인 16명이나 15명의 참여자가 보고한 범주는 “일반적(*general*)” 범주로 구분하였고, 참여자의 절반 이상 즉 9명에서 14명의 참여자가 보고한 범주는 “전형적(*typical*)”으로 구분하였다. 4명에서 8명의 참여자가 보고한 범주는 “변동적(*variant*)”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참여자가 15명 이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명에서 3명의 참여자가 보고한 범주에 대해서는 “예외적(*rare*)”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삶 만족도가 높은 8명과 낮은 8명을 나누어 삶 만족도에 따른 하위 표본의 빈도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삶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전체 인원인 8명이나 7명이 보고한 범주는 “일반적”, 절반 이상 즉 5명에서 6명이 보고한 범주는 “전형적” 마지막으로 2명에서 4명이 보고한 범주는 “변동적”으로 표기하였다. 1명 이하인 경우에는 “-” 로 표기하였다. 삶 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빈도를 표기하였다. 이와 같이 하위 표본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 Hill과 동료들(2005)의 권고에 따라, 하위 집단 간의 빈도 차이가 두 빈도 분류(*two frequency categories*) 이상일 때(예, 일반적 vs. 변동적) 집단 간 다른 결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도출된 4개의 영역과 26개의 범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대학생의 부모 기대 지각 및 적응에 관련된 영역 및 범주

영역	범주	빈도		
		전체 참여자	삶 만족도	
			높음	낮음
1. 부모의 기대내용				
	학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바라심	전	변	전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바라심	전	전	변
	“남들과 같은 평범한 삶”을 원하심	전	변	전
	규칙을 일방적으로 따라주기 바라고 통제하심	전	전	전
	형제/자매를 잘 챙기길 바라심	예	변	-*
	성별에 따른 기대가 있음	전	전	변
2. 부모의 태도와 표현방식				
	내 선택을 존중해주심	전	전	전
	부모님의 기대가 변함	전	전	일
	늘상 기대를 표현하심	전	변	전
	출생 순서에 따라 다른 기대를 가지심	변	전	변
	나의 진로기대에 본인들의 경험을 투영하심	전	전	전
	조건적으로 지지해주심	변	변	변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심	변	변	변
	내가 완벽하길 바라시거나 실패를 수용하지 않으심	변	변	변
3. 부모의 기대로 인한 영향과 반응				
	진로에 대한 요구로 부담을 느낌	변	-	변*
	기대에 대해 반항심이 듦	전	변	전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하다 생긴 어려움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함	예	-	변*
	기대에 벗어나거나 기대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죄책감이 듦	변	-	전*
	기대와 관련해 내적으로 갈등함	전	변	일*
	기대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함	변	변	전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기대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변화됨	변	-	변*
4. 부모의 기대에 대한 대처방식				
	기대에 부응하려 애씀	전	전	일
	대화를 통해 갈등상황을 해소하려 시도함	전	일	일
	내가 느끼는 대로 얘기할 수 있음	변	전	-*
	속마음을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여김	변	변	변
	신경쓰지 않음	전	일	전

주. 일=일반적, 전=전형적, 변=변동적, 예=예외적, -=한명 이하인 경우.\* 빈도 차이가 두 수준 이상으로 집단 간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Hill et al., 2005).

### 영역 1 : 부모의 기대 내용

이 영역에서는 참여자들이 부모님이 자신들에게 바란다고 인식한 내용과 관련된 범주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부모님이 진로에 있어 사회적 명망을 얻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살며, 부모님이 생각하는 평범한 삶을 원하신다고 보고했다. 또한 부모님의 기준대로 자신의 생활 영역에 간섭하려고 하며, 형제/자매를 잘 챙기길 바라신다고 보고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부모님이 성별에 따라 기대의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고 인식했다.

**학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바라심(전형적).** 참여자들은 부모님이 진로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바라신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고시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 고위직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거나 해당 진로에서 교수직과 같은 명예직을 바라신다고 보고했다.

사례들 : 고등학교 때부터, 학업과 직업이 저에게는 분리되지 않고, 한 방향 같은데. (중략) 애가 직장생활을 아무튼 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 기대, 그 욕망 (사례 14, 삶 만족도 ‘하’)/ 제가 약간 아버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시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제가 막 그럼 뭐 연극으로 실패했을 때, 교수로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교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더 넓힐 수 있다 이랬더니, 되게 막 기뻐하

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르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사례 3, 삶 만족도 ‘상’)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바라심(전형적).** 참여자들은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기 바라신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직업군인과 같이 고용 안정을 보장 받는 직업에 종사하길 바라신다고 보고했다.

사례들: 아무리 봐도 요즘 사회에서는, 많은 사기업들이 구조조정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상황에서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다 보니까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게 사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는, 흔히 철밥통이라는 것처럼 월급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20년 이상 근속할 경우 이에 따른, 죽기 전까지 연금도 제공될뿐더러 다양한 복지환경도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사례 1, 삶 만족도 ‘상’)/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인 거였어요. 부모님께는 항상. 교사를 원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다들 교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교사직업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중략)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애가 이 안정적인 직업을 두고 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지 납득을 잘 못하시고.(사례 10, 삶 만족도 ‘하’)

**“남들과 같은 평범한 삶”을 원하심(전형적).** 참여자들은 부모님이 일정 나이가 되면 취업이나 결혼을 하는 “남들과 같이 평범한 삶”의

경로를 따르길 바라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시기에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길 바라신다고 보고했다. 간혹 참여자들은 부모님이 다른 사람과 참여자들을 비교하며 기대를 표현한다고 인식했다.

사례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평범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데, 뭐 어떤 의미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냐면 남들 대학갈 때 대학가고 남들 취업할 때 취업하고 남들 결혼할 때 하고 차 살 때 차사고 뭐 이런(사례 12, 삶 만족도 ‘하’)/ 전형적인 삶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교사도 그렇고 그 안정적인 삶도 그렇고 ‘남들 결혼할 때 결혼해서 남들처럼 살아라’는 마인드가 좀 있으시고(사례 10, 삶 만족도 ‘하’)

**규칙을 일방적으로 따라주기 바라고 통제하심(전형적).** 참여자들은 부모님이 자신들의 규칙을 따라주기 기대하시고 삶에 사사건건 통제하신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통금 시간이 있어서 활동 시간에 제약이 생겼다거나, 어떤 옷을 입을지에 잔소리를 듣는다고 보고했다.

사례들: 약간 사사건건 다 간섭을 하세요. 오늘 뭐하니, 내일 뭐하니, (중략) 집에 가면은 오늘 어디 나갔다 오면, 왜 밤에 늦게 오니,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니, 저는 무슨 낭비를 한 건진 잘 모르겠지만. 뭔가, 시간을 아껴 쓰기를 계속 요구를 하세요. 저를 약간 쫓다는 느낌을 받아요(사례 5, 삶 만족도 ‘상’)/ 통금도 철

저하고 외박도 허가를 잘 안 하시고. 엄마 쪽이 간섭이라고 해야 하나? 관심이 좀 많으세요. 통제하려고 하시고 (중략) 제가 좀 밖에 활동을 하는 편인데,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요. 너 밖에 이제 그만 좀 돌아다녀. 집에 좀 있으면 안 되겠니.”(사례 4, 삶 만족도 ‘상’)

**형제/자매를 잘 챙기길 바라심(예외적).** 참여자들은 부모님이 형제를 잘 돌보길 바라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 보다 어린 형제와 대화를 나누길 바라시거나 챙겨주기를 바라신다고 보고했다. 이 범주의 경우 하위 표본 간 빈도를 비교해보면, 삶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비해(-) 삶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에게(변동적) 형제/자매를 더 잘 챙기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Hill과 동료들(2005)이 제안한 두 수준 이상의 빈도차를 보였다.

사례들: 좀 부모님의 기대 하면 동생 챙기는 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서. (중략) 애가 공부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 똑똑하고 인간관계도 저보다 훨씬 좋고.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예요. 그래서 저는 애가 날 챙겼으면 날 챙겼지 내가 왜 애를 챙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어릴 때부터 많이 앓았고 이러니까 걱정이 많으신 거죠. 그니까 동생을 챙기라는 그런 기대가 많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사례 8, 삶 만족도 ‘상’)

**성별에 따른 기대가 있음(전형적).** 참여자들이 인식하기에, 참여자들의 부모님은 남자

와 여자라는 성 역할에 따른 기대가 있었다. 즉, 부모님들이 성 역할 관념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남자로서 또는 여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언급하시거나 참여자들의 직업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사례들: 아버지는 항상 그런 표현이 있어요. ‘기집애같이’ 그리고 ‘남자면 사내라면’ 그 성차별적인 사고가 너무 강해서 아버지가 ‘남자면 니 닳은 애기 낳고 이래야지.’(사례 15, 30대 만족도 ‘하’)/ 초등학교생이었는데, 장래 희망 란에다가 교사를 써냈어요. 쓰고 그거를 어머니한테 보여줬는데, 막 노발대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중략) 남자 아들이니까 교사보다는 다른 더 큰걸 해야 된다. 근데, 딸은 교사해도 된다.(사례 12, 30대 만족도 ‘하’)

## 영역 2 : 부모의 태도와 표현방식

이 영역에서는 참여자들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표현 양식과 표현 빈도, 그리고 참여자들의 행동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이나 태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도출되었다.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부모님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주시다고 느끼기도 하고, 과거랑 다르게 부모님의 기대가 변화했음을 감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은 부모님이 항상 기대표현을 하시는 것 같다고 지각하였으며 부모님의 기대는 참여자 자신과 자신의 형제/자매에게 다르게 적용된다고 인식하였다. 더불어 참여자들은 부모님이 부모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셨다고 느꼈다.

**내 선택을 존중해주시심(전형적).** 참여자들은

부모님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주로 부모님이 참여자들의 선택을 믿어주고 그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지받는 맥락에서 보고되었다.

사례들: 대학 들어오고 나서는 그래도 성인이고 하니까, 이 길이 나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너의 선택은 너의 것이라는 그런 것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기대는 해주셨지만 그거에 대한 강요라든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사례 2, 30대 만족도 ‘상’)/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거기에 자신이 있고 또 거기에 노력을 하고 있다면, 자기는 얼마든지 필요한 거 해주고 지원해줄 테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사례 12, 30대 만족도 ‘하’)

**부모님의 기대가 변함(전형적).** 참여자들은 다양한 계기로 부모님의 기대가 달라지거나 혹은 기대표현이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참여자의 건강 악화, 부모님과의 심한 갈등, 부모님의 기대로 인한 형제/자매의 어려움 등의 계기로 부모님의 기대가 변화되었다고 보고했다.

사례들: 엄마도 요즘 노력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예전보다는? (제가) 아프고 나서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서로 그냥 약간, 이해를 하고 서로를 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사례 4, 30대 만족도 ‘상’)/ 제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고시에 붙어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그 얘기가 약간 금기처럼,

많이 돼서. 그냥 제가 떨어졌으니까, 안 할래, 가 아니라 굉장히 큰 진통을 겪었거든요, 집에서. 이걸 안 한다고 함으로써 되게 많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 쳐가지고 지금은 고시 얘기는 약간 터부 같이 된 거 같아요.(사례 14, 삶 만족도 ‘하’)

**늘상 기대를 표현하심(전형적).** 참여자들은 부모님이 시시때때로 기대를 표현한다고 보고 하였다. 부모님의 기대표현은 구체적인 빈도로 따질 수 있기보다는, 대화를 하는 때 순간마다 나타난다고 인식하였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식사자리에서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때에도 부모님이 기대를 표현하였고,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살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연락할 때마다 기대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들: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한 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항상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도 결국 훈계 듣는 걸로 끝나요.(사례 9, 삶 만족도 ‘하’)/ 저녁을 먹는데 한 끼도 편하게 먹었던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저녁을. 저녁을 좀 평화롭게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녁 때마다 막 얘기를 했었던 거 같으니까...(사례 12, 삶 만족도 ‘하’)

**출생 순서에 따라 다른 기대를 가지심(변동적).** 참여자들이 인식하기에, 참여자들의 부모님은 출생 순서에 따라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다. 이런 부모님들의 다른 기대는 부모가 장남이나 장녀에게 더 큰 기대를 부여하거나,

막내에게는 장남/장녀보다 아이처럼 대우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례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저에 대한 그것 보다 첫째에 대한 첫째로서 그런 게 심했어요. 막내가 좀 어른들 사이에서 솔직히 말하면 철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했을 때 ‘니가 이러니까 얘가...’ (중략) ‘니가 잘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에서 좋은 인상을 보여서 둘째가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문제가 없다.’(사례 9, 삶 만족도 ‘하’)

**나의 진로기대에 본인들의 경험을 투영함(전형적).** 참여자들은 부모님이 경험하신 직업이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조언을 하신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은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소망을 자신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 같거나, 부모님이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직업을 자신들에게 바라기도 하고, 부모님이 경험했던 좋지 않은 경험을 피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고 인식하였다.

사례들: 그러니까 일단은 아버지가 저한테 뭐 영어를 더 잘해야 한다느니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 그게 저한테 바라다기보다는 아버지 자신한테 바라시는 건데, 저한테 투영을 해가지고 바라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자기 자식이 자신의 직업적인 목표에 약간 부속품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족경영이 판타지시거든요(사례 5, 삶 만족도 ‘상’)

사실 그냥 뭐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신 거 같아요. 당신께서 고생했던 거 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덜 겪으면서 좀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 같아요.(사례 2, 삶 만족도 ‘상’)

**조건적으로 지지해주심(변동적).** 참여자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조건적으로만 지지해준다고 보고하였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의견과 일치하는 의견에 대해서만 참여자의 편을 들어 주거나,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에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언급하였다.

사례들: 저는 아버지의 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이제 그 때 아버지가 화를 많이 내세요. 화를 많이 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너한테는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결론까지 혼자서 도달을 하시고...(사례 5, 삶 만족도 ‘상’)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심(변동적).** 참여자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는 부모님이 자신을 어린 아이처럼 여기고 자신의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했다.

사례들: 제가 방에 있다가 엄마가 자꾸 방문을 막 벌컥벌컥 열고 들어와서 그제 싫어서 말했는데 안 들으셔서 방문을 잠그고 그랬는데 진짜 싫어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좀 제가 자기를 밀어낸다고 생각하

는 게, 진짜 싫어하셨습니다. 항상 되게 배신감을 느낀다는 투로 얘기하세요, 항상. 좀 저랑 자신이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를 전혀 별개의 인간으로 생각 안하고 좀 항상 그래서 모순적인 말도 많이 하세요. 정신병자라고 그러다가 막 너는 엄마의 희망이야 이런 거 이해 안돼요(사례 6, 삶 만족도 ‘상’)

**내가 완벽하길 바라시거나 실패를 수용하지 않으심(변동적).** 참여자들은 부모님께서 참여자 자신이 완벽하기를 바라시거나 실패한 경험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성취를 해내기를 바라신다고 느끼거나 그러한 성취를 당연시 여긴다고 느꼈고, 참여자 자신 혹은 부모님이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는 끊임없이 시도하여 이루어내기를 요구한다고 응답하였다.

사례들: 부모님께서서는 딸이 항상 성공하는 모습만 보시다가 딸이 좀 큰 실패를 겪는 모습을 처음 보신 거예요. (중략) 성공에는 여러 가지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을 수도 있는데 딸한테는 하나도 이해를 안 하시려는 편이었어요. (중략) 아버지는 그거 쉬지 말고 공부해야지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이세요. 뭐가 항상 초인적인 노력을 바라세요. 항상 다 열심히 해야 하고. 네가 더 열심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살겠어요.(사례 3, 삶 만족도 ‘상’)

**영역 3 : 부모의 기대로 인한 영향과 반응**

이 영역에서는 부모님의 기대로 인한 영향과 참여자들의 다양한 반응들과 관련된 범주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기대에 반항심이 들고,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하다 생긴 어려움으로 부모님을 원망하고, 기대에서 벗어나면 죄책감이 들며, 부모님의 기대로 인해 내적으로 갈등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님의 기대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며,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변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영역에서는 전체 6개 범주 중 4개의 범주에서 하위 표본 간 두 수준 이상의 빈도차이를 보였다.

**진로에 대한 요구로 부담을 느낌(변동적).**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기대 자체를 과중하게 여기고 그 기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통제 당한다고 느끼거나 고시와 같은 특정 진로를 강요받아 이를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이 범주의 경우 삶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이(변동적) 두 수준 이상의 빈도 차를 보이며 부모님의 요구를 부담으로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사례들: ‘내가 너 말고 누구를 바라보겠냐? 내가 정말 너 하나 바라보고 지내는데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 그런 식의 반응을 계속 보이시니까. 나는 그냥 이 일 하고 싶어서 이 길 가고 싶어서 하고 싶을 뿐인데 내가 원하는 일 좇는 것 자체가 불효가 되니까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진지하게 저음 교사나 교직원을 고민해보기도 했는데

(중략) 너무 관심이 없고 그렇다보니까 사람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구요.(사례 10, 삶 만족도 ‘하’)

**기대에 대해 반항심이 들(전형적).**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기대에 대해 반항심이 들었다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반항심은 부모님이 참여자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대하실 때 특히 더 많이 든다고 보고하였다.

사례들: “집에 대한 반항심도 있었던 거 같아요. 약간, 엄마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를 다닌다 하는, 그런, 반항?” (사례16, 삶 만족도 ‘하’)/ 제가 정말 잘못을 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면 사실 할 말이 없지만 제 잘못이 맞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학보사를 하는 게 뭐 잘못을 아닌데 제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규제를 하실 때 반발을 심하게 했었죠.(사례 10, 삶 만족도 ‘하’)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하다 생긴 어려움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함(예외적).**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기대대로 따르고자 했으나 그로 인해 어려움이 생겼을 때 결국 부모님을 원망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참여자가 원하지 않았지만 강요받아 하게 된 일들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거나 힘든 일이 발생한 경우 원망을 많이 표현하였다. 이 범주에서는 삶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에 비해(-) 낮은 사람들이(변동적) 두 수준 이상의 빈도 차를 보이며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하다 생긴 어려움으로 인해 원망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사례들: 아버지가 군대 안 가면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표현을 쓰셔서. 그거 안 되는지 몰랐어서. 그때는 어머니도 거들었어요. ‘군대는 갔다 와야 된다’ 그러더라. (중략) 친척들 다 모였을 때 ‘우리 집 안에서 군필인 애는 애밖에 없지 않냐.’ 뭐 자랑스러워하라고 하는데 전혀 자랑스럽지가 않아서. 군대 안에 있을 때 저는 많이 힘들었던 게 있어서. 그런 군대 안에서 겪었던 것들도 그 원망 대상이다 아버지로 향하게 돼서.(사례 15, 삶 만족도 ‘하’)

**기대에 벗어나거나 기대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죄책감이 듦(변동적).**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기대에 상충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무기력하고 무언가 잘못된 느낌을 갖게 된다고 보고했다. 부모님의 기대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난 생각이나 행동을 한 것으로 인한 죄지는 느낌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느끼는 죄지는 듯한 느낌도 보고되었다. 이 범주의 하위집단별 빈도를 살펴본 결과, 삶 만족도가 낮은 집단(전형적)이 높은 집단(-)보다 보고 빈도에서 두 수준 이상 차이가 나, 삶 만족도 집단 간 죄책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들: ‘난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어’라고 완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워낙 오랫동안 체득이 되다보니까 입으로는 말하면서 속으로는 죄책감을 느끼고 약간 스스로 불편해하고 그러니까.(사례10, 삶 만족도 ‘하’)

**기대와 관련해 내적으로 갈등함(전형적).**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기대를 받아들이기에 심리적으로 편치 않아서 내적으로 갈등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려야겠다는 마음과 그렇게 하기 싫은 상충된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았고, 내적 갈등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범주의 하위집단별 빈도를 살펴본 결과, 삶 만족도가 낮은 집단(일반적)이 높은 집단(변동적)보다 보고 빈도에서 두 수준 이상 차이나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들: ‘너도 교사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님입장에서 배신감을 느끼실 거고 돌연변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되게 그럴 때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한편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 속에서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좀 딜레마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끝까지 이 길을 밀어붙이는 게 맞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건가? 아니면 그냥 저걸 따라가는 게 맞나?’ 갈등을 되게 혼자서 속으로 계속 수 없이 겪었던 것 같아요.(사례 10, 삶 만족도 ‘하’)/ “오히려 좀 하고 싶은 걸 해라 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선택한 길이 맞겠지? 라던가, 아, 잘 할 수 있겠지? 오히려 자신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제가 진짜 뭐 뛰어난 사람이 아니어도 부모님한테는 소중한 딸이고, 대단해 보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례 11, 삶 만족도 ‘하’)

**기대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함(변동적).** 참여

자들은 부모 기대의 영향으로 자율성을 침해 받지 않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의 기대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사례들: 아빠한테, 뭐, 어떤 배움을 받았다는가 사랑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건 빛이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별로 도움을 안 받으려고 했었고. 아빠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다.(사례 7, 삶 만족도 ‘상’)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기대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변화됨(변동적).** 참여자들은 따로 나와 살게 되면서 부모님과 물리적인 거리가 생기자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반응이 바뀌었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면, 군대를 다녀왔다거나 기숙사에 살게 되면서 늘 접하게 되는 부모님의 기대로부터 거리감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이전과 다른 반응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범주는 삶 만족도가 낮은 집단(변동적)이 높은 집단(-)보다 보고 빈도에서 두 수준 이상의 많은 보고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삶 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떨어져 지내면서 기대에 대한 반응변화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

사례들: 이제 저는 경제적으로만 독립하면 가족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아예 하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부모님한테 좀 너그러워졌다고 해야 하나?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조금 더

줄어든 것 같기도 하구요.(사례 9, 삶 만족도 ‘하’)

**영역 4 : 부모의 기대에 대한 대처방식**

부모의 기대에 대한 대처방식 영역에서는 참여자들이 부모의 기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와 관련된 범주들이 도출되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쓴다거나,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갈등상황을 해소하려 시도한다는 범주, 부모님께 내가 느끼는 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범주와 같이 관계지향적인 범주들이 도출됨과 동시에 부모님에게 속마음을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거나 부모님의 바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범주와 같이 상반된 범주들도 도출되었다.

**기대에 부응하려 애씀(전형적).** 참여자들은 자신이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쓴다고 보고하였다.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고자하는 노력은 부모님의 바람과 자신의 욕구가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례들: 부모님의 ‘내(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상에 계속해서 맞춰가려고 하는? ‘내(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보다는 그 쪽에.(사례 14 삶 만족도 ‘하’)/ 대기업을 가라는 부모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기대에 어떤... 보답하고 그런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사례 1 삶 만족도 ‘상’)

**대화를 통해 갈등상황을 해소하려 시도함(전형적).** 참여자들은 부모님과 갈등이 있을

때 대화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진로, 생활양식, 혹은 성격에 대한 문제로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참여자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들: 제대로 여기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서 그때 좀 끊임없이 그 문제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사례 10, 삶 만족도 ‘하’)  
어떻게 하나면, 이제, 제가 원하는 게, 다른 게 있다면, 엄마가 약간 기분 좋을 때 짬을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좀, 마치 허락을 구하는 사람처럼 (웃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제가 행복하지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조율이, 타협이 돼요. 타협이 되는 편이고.(사례 16, 삶 만족도 ‘하’)

**내가 느끼는 대로 얘기할 수 있음(변동적).** 참여자들은 부모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혹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 등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범주에 대한 하위집단 간 빈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삶 만족도가 높은 집단(전형적)이 낮은 집단(빈도 부족)보다 두 수준 이상으로 보고빈도가 높아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들: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서 좀 풀릴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걸 못 했다면, 요즘은 그걸 할 수도 있고, 아버지한테 얘기도 많이

할 수도 있고.(사례 3, 삶 만족도 ‘상’)

**속마음을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여김(변동적).** 참여자들은 부모님께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여겼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보고하거나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면 갈등이 유발될 것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사례들: 그런 일을 뭐 하려고, 어찌고 저찌고, 그런 식으로 매도를 당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좀, 말을 꺼내봤자겠구나... 이런 생각 좀 해서 애초부터 시도를 잘 안 했던 거 같아요.(사례 14, 삶 만족도 ‘하’)

**신경쓰지 않음(전형적).**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바람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모의 기대나 바람과는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추구한다고 보고하였다.

사례들: 저는 사실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뭐,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꼭 거기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구요. (중략) 근데 거기에 무조건 맞춰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제가 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는 자랑스럽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됐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사례 3, 삶 만족도 ‘상’)  
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말했어도 엄마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내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그때부터 더 나는 ‘그냥 내가 생

각하는 것만 해야 겠다'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사례 6, 삶 만족도 '상')

## 논 의

본 연구는 부모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부모의 기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기대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부모의 기대영역', '부모의 태도와 표현 방식', '부모의 기대로 인한 영향과 반응', '부모의 기대에 대한 대처방식'의 4개 영역과 26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각 영역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기대영역에서는 참여자들이 부모님이 바란다고 인식한 내용과 관련된 범주들이 도출되었다. 먼저 참여자들은 진로 선택과 관련된 부모의 기대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가길 바라시며,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바라시고, "평범한" 진로를 선택하길 바라신다고 보고했다. 진로에 대한 이러한 부모의 기대는 집단주의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성취의 목적이 '나'에게 집중 되는 것과는 달리,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중요한 타인, 특별히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 성취목적의 기반이 된다(조공호, 1999). 따라서 한국에서는 학업성취가 입신양명을 위한 것이며(박영신, 김의철, 2004; Kim, Yang, & Hwang, 2006), 자녀는 학업에 충실히 하는 것을 부모에 대한 '효'라고 여긴다(박영신 등, 2014). 뿐만 아니라 부모 또한 학업 및 입시에 대한 성취를 효로 여기며,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대학생 자녀의 취업 성공에 대한 바람이 있다(이민경, 2008). 부모

님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바라신다는 연구 결과는 황매향, 조효진, 조운진, 방지원(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현재 대학생들의 부모 세대가 IMF를 겪고 불안정감을 경험하여 안정성을 중요시 할 뿐 아니라, 한국의 현재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기업의 고용 침체(박우현, 2017)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이 "평범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부분은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조화와 규범에 순응하는 것을 중요시 하는 문화적 가치(조공호, 1999)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한국 문화에서 서로 비슷한 시기에 취업, 결혼, 육아 등의 단계를 밟는 것은 '평범'하다고 여겨지고 일종의 규범으로 형성되기도 하기에, 이러한 단계를 따라야 하는 압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청년들은 경제적 및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취업, 외모관리, 인간관계,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 'N포 세대'로 표현되는데(안창규, 2016), 이들에게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평범한 진로'가 성취하기 어려운 '평범하지 않은 진로'로 다가올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은 부모님들이 정하신 규칙을 일방적으로 따르길 바라고 통제하신다고 보고 했다. 참여자들은 부모님이 요구한 규칙으로 엄격한 통금 시간 설정, 복장이나 꾸미는 것에 대한 간섭, 일정 보고 등을 언급했는데, 이는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나 권위적인 부모 양육 태도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나은영, 차재호, 1999; 박아청, 1998). 먼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보호적 측면은 한국 사회의 특수한 부모 자녀 관계로 볼 수 있는데, 한국의 과보호는 교육열과 부모자녀 동일체감과 관련이 있어 외국의 과보호요인과 다른 개념을 포함한다(박아청, 1998; 정은영, 장성숙, 2008). 이에 정은영과 장성숙

은 한국의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잉보호의 구성요인을 밝히는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중 과잉통제 요인은 본 연구의 범주에서 참여자들이 언급한 부분과 유사했다. 이러한 과잉통제는 대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증가시키거나(강완숙, 2000),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증가시켜(김유정, 최수동, 김성민, 서경현, 2008) 대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부모는 권위적인 양육 태도로 자신이 상정한 가정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따라주기를 바랄 수 있는데, 자녀는 가족 내에서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부모의 가치를 따르기 어려워하여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나은영, 차재호, 1999; 서수균, 전지혜, 안정신, 정영숙, 2015). 하지만, 이 범주는 본 연구에서 삶 만족도가 낮은 집단뿐만 아니라 높은 집단에서도 '일반적' 빈도로 보고 되었으며 이는 국외에서 부모의 통제적 양육 방식이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다고 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이다(Agliata & Renk, 2008, 2009). 이는 한국 자녀들이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통제적 양육태도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Bugental과 Grusec(2006)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자녀가 부모의 통제적 양육을 보살핌으로 여길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부모의 양육 방식을 통제적이면서도 동시에 애정적 양육 태도로 지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정민, 성현란, 권선영, 2014).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기대가 다르다고 보고했다. 한국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성 역할로 인하여 성 역할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강했다(양명숙, 1996). 손승영(2009)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가 성별에 따라 자녀에게 다른 기대를 가진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부모가 딸에게는 '예뻐야 한다'거나, '안정적인 교사나 공무원 되기' 등을 바라고, 아들에게는 '가문의 기대를 받고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치며 자라기' 등을 바란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부모의 태도와 표현방식 영역에서는 부모님이 어떤 태도로 기대를 표현하시는데 대한 범주들이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이 느끼는 부모님의 기대 변화는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이었는데 예를 들면 기대표현이 줄어 부담감을 덜 느낀다거나, 더 이상 부모가 원하는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한 참여자는 부모님과 대화에서 "울면서 그 동안 속상했던 걸 다 이야기 한다든지 했더니(중략) 무조건적으로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이런 부분은 얼어 줄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이영미와 한재희(2013)의 연구가 보고한 것과 같이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갈등을 통해서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신념들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기준만을 주장하기보다 자녀의 관점도 존중해주기 시작했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부모의 나이가 들면서 기대가 변화한 경우도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기대 변화는 자녀의 성장과 부모의 노화가 맞물리면서 서로의 역할이 함께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부모님이 출생 순서에 따라 다른 기대를 하신다는 범주는 여러 가지 원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부모의 기대는 출생순위나 각자

의 성격이나 성취 등 여러 가치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범주는 기본적으로는 출생순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Adler(1956)의 이론과 맥을 같이하며, 가족 안에서 출생순위나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연령 등 가족 구성이 부모의 신념체계나 기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McGillicuddy-Delisi(1980)의 주장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일부 참여자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조건적으로 지지한다고 지각하고, 부모님이 경험한 것을 자신에게 투영하고자 한다고 느꼈다. 이러한 부모의 조건적인 지지는 자신의 기대를 투영하기 위해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으로 Barber, Olsen과 Shagle(1994)이 제시한 행동적/심리적 통제를 통한 양육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부모-자녀 감정동일체 의식으로도 이해해볼 수 있다(이영미, 한재희, 2013). 이러한 의식은 부모가 자녀의 성취에 과하게 관여하는 현상을 낳을 수 있는데, 이를 테면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과 목표를 대리적으로 성취하고자 자녀에게 지나치게 헌신하거나(Kim & Choi, 1994), 부모 자신이 못 이룬 소망을 자녀에게 투영할 수 있다(한성열, 2008). 이러한 동일체 의식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완벽하길 바라거나 실패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범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자기의 확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못하거나 실패했을 때에는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Choi, 1990) 자녀에게 더 완벽하기를 요구하고 실패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 통제, 부모-자녀동일체 의식과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기대를 투영하는 상황들은 자녀가 성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여기지 않게 만들 수 있다. 같은 동아시아문화권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hen(1995)의 질적연구에서 대만 대학생들이 서구와는 다른 독특한 분리개별화 과정 및 부모-자녀 관계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것 같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한 참여자는 “항상 좀 저랑 자신이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를 전혀 별개의 인간으로 생각 안하고 좀 항상 그래서 모순적인 말도 많이 하세요”라며 부모가 자신을 하나의 분리된 인격으로 대하지 않음을 표현하였다.

셋째, 부모님의 기대로 인한 영향과 반응 영역은 참여자들이 부모님의 기대를 어떻게 느끼고 생각했느냐에 대한 영역으로 부담감, 반항심, 원망 등과 같은 정서적인 반응들이 주로 범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기대에 반항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했는데, 반항심을 갖는다는 것은 통제감을 회복하여 자유를 찾기 위한 감정으로 볼 수 있다(Brehm, 1966). 특별히 부모님의 기대로부터 삶의 분리가 시작되는 성인 진입기는 부모님의 영향에서 거리를 두고 독립된 결정을 점차적으로 시행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Arnett, 2006), 이 시기에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어려울 경우 삶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한정아, 심홍섭, 2005).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진로에 대한 부모님의 요구를 부담으로 느낀 것과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고려할 때, 참여자들의 반항심은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부정적 정서이면서 한편으론 자신의 삶에 통제감을 찾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성인 진입기의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부정적 정서와 반응을 부적응적인 것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독립과 적응의 일환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살다가 생긴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님을 원망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흥미롭게도 삶 만족도가 낮은 집단인 경우에만 ‘변동적’으로 나타나고 삶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언급이 없었다. 자녀는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고 부모의 기대에 따라 살 수 있는데, 이는 갈등 해결 방식에서 자신의 의견은 무시하고 부모의 기대를 따르면서 갈등을 회피하는 순응적인 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갈등을 심화시키고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류승하, 1996). 따라서, 부모의 기대를 순응적으로 따르던 자녀가 오히려 부모와의 갈등을 겪어 삶 만족도가 낮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생각을 할 경우 죄책감이 든다는 경우는 삶 만족도가 낮은 집단일 경우에만 전형적이고 삶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를 언급한 참가자가 없어 삶의 만족수준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삶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만 본 범주가 나타난 것은 성인 진입기 자녀의 중요한 특성인 심리적 독립성을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 Hoffman(1984)은 심리적 독립성 척도(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를 개발하며, 갈등적 독립성이라는 하위 개념을 제안했는데 이는 부모에 대한 죄책감, 부담감, 적의나 분노 등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갈등적 독립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적응 수준이 좋고(이희영, 최대진, 2004; 정은희, 1992) 정서적 문제가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Hoffman & Weiss, 198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삶 만족도가 낮은 자녀 중 부모의 기대와 다른 생각을 할 때 죄책감을 보고한 경우 부모로부터 갈등적 독립 수준이 낮기 때문에 심리적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모의 기대와 관련해 내적으로 갈등하는 범주는 삶 만족도가 낮은 집단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빈도로 삶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에 ‘변동적’으로 나타나 두 집단을 구분하는 유의한 범주로 나타났다. 삶 만족도가 낮은 참여자들은 주로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충족시켜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 갈등이 생긴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부모의 기대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양가감정을 느끼는 자녀가 감정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양가감정이 해소되기 전까지 부적응적인 심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는데(Fingerman, Pitzer, Lefkowitz, Birditt, & Mroczek, 2008), 본 연구에서도 부모 기대에 대한 내적 갈등이 있다는 범주는 특별히 삶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 부모 기대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인한 내적갈등이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삶 만족도가 낮은 참여자들은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지만, 삶 만족도가 높은 참여자들 역시 성인으로서 독립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었기에 전체 참여자들 중 ‘전형적’에 해당하는 수의 참여자들이 부모의 기대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롭게 싶다고 보고한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부모의 기대에 대한 대처방식 영역에서는 부모가 표현하는 기대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와 관련된 범주들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부모

기대 부응 수준이 낮은 사람인 것을 고려했을 때, 우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쓴다는 범주나 부모님의 기대로 인한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시도한다는 범주는 흥미로운 결과였다. 참여자들은 여전히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었으며 보다 더 자녀로서 공손하게 부모와의 갈등을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태도들을 보였다. 이는 과거와 다르게 청년들이 서구화된 개인주의적 가치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자 하고 자녀로서의 예를 지키며 갈등을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전통적 가치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부모 자녀 관계에서 대화 자체보다 어떻게 의사소통 하는 지가 중요하다는 양혜경, 남인숙(2012)의 연구를 고려하면, 대화 시도보다도 그 방식과 대화 내용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부모의 반응 양상은 상이했다. 부모들은 참여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거나 자녀와 타협하기도 하였고 일부는 자녀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던 범주와는 정반대로 부모님께서 자신의 속마음을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범주와 부모의 바람을 신경쓰지 않는다는 범주도 도출되었다. 이러한 대처 방식은 아동·청소년과는 달리 성인진입기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일 수 있다. 한편, 한 참여자는 “처음에는 엄마랑 논리적으로 제 때에는 논리적으로 반박도 해보고 막 소리 질러도 보고 울어도 보고 그랬는데 그냥 별로 반응 없었어요 엄마가 계속 막말하고 또 자기 혼자 그런 막말 다 한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면 또

와서 사과 깎아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좀 상대를 안해야겠다고 느꼈어”라고 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자녀가 가족 내에서 갈등하고 소외감을 경험하게 될 경우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철수하기 시작한다는 Micucci (2009)의 주장처럼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그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 소통과정에서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소통이 단절될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삶 만족도에 따른 하위 표본 간 유사점과 차이와 관련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부모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각한 본 연구의 대학생들은 삶의 만족도와 상관없이 부모들로부터 비슷한 기대를 지각하고, 유사한 태도와 표현 방식을 경험하였다. 대처 방식 측면에 있어서도 ‘내가 느끼는 대로 얘기할 수 있음’ 범주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대처방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의 기대로 인한 영향과 반응 영역에서 7개 범주 중 5개의 범주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삶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부모 기대로부터 죄책감, 부담, 내적 갈등, 원망과 같은 부정적 반응을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부모의 태도나 자녀의 어떤 행동적 대처라기보다는 앞서 논의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일 가능성이 있다. 대안적인 해석으로, 대학생 자녀가 삶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내외적 자원(예, 자아존중감, 친구관계)들이 부모의 기대나 요구로 부담을 느끼거나 내적으로 갈등할 가능성을 낮추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원망,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차경호(2001)의 연구에 따르면 삶 만족

도가 높은 대학생들이 더 외향적이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미예와 조남근(2015)의 연구에서는 삶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이나 긍정적 정서,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보고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탐색하지 못했지만,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을 가져오는 다양한 요인들이 부모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여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성인 진입기의 대학생 자녀가 겪는 경험들을 질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거나 취업과 진로라는 제한된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학생 자녀에게 부모가 어떤 기대와 태도를 갖고 있으며 그 기대에 대해 자녀는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성인 진입기라는 발달 단계의 특성이 한국사회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하였다. 부모가 자녀의 독립을 강조하는 서구와는 달리, 한국문화에서는 부모가 성인 진입기의 자녀에게도 여러 영역에서 기대를 갖고 이를 자녀에게 표현하며, 자녀 역시 부모를 염두에 두고 순종하는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 있다(박영신 등, 2014; 이영미, 한재희, 2013). 본 연구는 자녀의 관점에서 상호의존적인 부모-자녀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질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서로의 역할을 조율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부모-자녀가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다고 여기고 이를 병리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Masterson, 1985; Millon, 1981), 본 연구는 자녀가 부모-자녀 관계에서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부모와 상호 조율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의존적 관계가 어떻게 건강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집단주의 문화권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는 변하지 않는 권위자이고(최상진 등, 2000), 자녀는 그런 부모의 뜻을 따르고 모셔야 한다는 수직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서선희, 1998)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의 변화가 부모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었고, 부모의 변화 역시 자녀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었다. 즉, 권위적이고 변화가능성이 없는 부모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주의 문화권의 상호의존적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역할 조율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성인 진입기의 갈등적 양상들을 그 시기에 겪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자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이에 공감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의 부모와 자녀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상호 기대와 충족을 요구하기 때문에, 성인 진입기에 들어선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해나가는 과정이 개인주의 문화권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Chen, 1995). 부모는 자녀가 자신보다 나아지거나 타인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성별이나 순위에 따른 역할들을 감당해내기를 바라며 부모가 가진 가치를 자녀에게 투영하고 있는 반면,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원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의 기대에 부

응하려고도 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와 다른 부모의 기대로 인해 내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박영신 등, 2014) 성인 진입기에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형성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적인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부모의 다양한 기대에 대한 이러한 갈등적 반응양상은 한국의 상호의존적 부모자녀 관계에서 성인 진입기 자녀들이 겪을 수 있는 반응으로 보이며, 개인주의 문화권과는 다른 분리-개별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Chen, 1995). 따라서 성인 진입기인 대학생들을 상담하는 대학 상담 장면에서는 독립 혹은 의존과 같은 한 쪽 방향에 치우쳐 선불리 행동화하도록 개입할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을 잘 이해하고 갈등으로부터 야기되는 심리적 고통에 대해 공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내적으로 갈등하는 성인 진입기의 내담자에게 내담자 입장에 편향되어 개입하기보다 부모의 기대가 내담자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내담자와 함께 모색해볼 수 있다. 만약 내담자가 더 이상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써 왔던 노력들과 변화를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기대가 내담자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탐색할 수 있고, 앞으로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지를 스스로 정리하여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부모의 기대나 태도, 표현방식이 비슷하더라도 현재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부모의 기대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내담자가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돕거나 자원을 찾는 것도 부모의 기대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개입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개입은 내방할 성인 진입기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부모는 성인 진입기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자녀가 기대대로 해주기 원하며 기대에 부응할 때만 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등 상반되고 모순적인 반응을 자녀에게 보였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열망을 대리성취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효라고 여기며 순응해오다가(김의철, 박영신, 2008)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보다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게 되고 부모의 기대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자녀의 기쁨과 고통은 부모의 기쁨과 고통이 되고, 부모의 기쁨과 고통은 자식의 것이라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균열이 생기면서(이영미, 한재희, 2013) 부모 역시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자녀의 성취를 위해 헌신해온 자신의 노력이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내담자의 부모에게도 본인들의 기대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갈등하게 되는 상황들이 자녀가 성인 진입기를 거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시키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대학생 16명을 대상으로만 실시되었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여자들이 대학이 모두 서울 지역에 있었는데, 서울지역에 있는 대학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진학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의 기대를 많이 받아왔을 가능성이 있

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부모의 기대에 잘 부응해왔던 학생들일 수 있으므로 성인 진입기 대학생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학생들의 전공이 인문사회계열에 편중되어 타전공 학생에 대한 전이가능성(transferrability)이 낮을 수 있다. 즉, 타전공 대학생의 부모 기대와 자녀의 경험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팀의 연구자들이 대부분 성인 진입기에 해당되는 연령이기 때문에 자료 분석과정에서 개인의 경험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인의 경험으로 인한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구 준비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편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다. 또한 연구팀의 합의과정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내부 감수자와 외부 감수자를 두어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셋째로, 본 연구는 자녀인 참여자들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모의 관점을 다루지 못하였다. 물론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모습을 살펴본 것도 의의가 있지만 상호의존적 관계를 충분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모-자녀를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성인 진입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험에 대해서도 면밀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의 기대에 잘 부응하지 않고 기대에 반하는 경우에 부모가 어떤 경험을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의 성인 진입기의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자녀와의 관계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험하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진입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중단적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한

다. 본 연구가 성인 진입기의 대학생의 한 시점만을 대상으로만 때문에 사춘기의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진입기로의 이행과정에 대해 살펴보지 못하였다.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 발달 단계별로 중단적으로 변화과정을 살펴본 연구가 없으므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부모 기대가 따라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원숙 (2000). 지각된 부와 모의 가치, 부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및 부모의 과잉통제와 대학생의 소외감과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유정, 최수동, 김성민, 서경현 (2008). 부모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대처 간의 관계. *스트레스연구*, 16(3), 251-259.
- 김은정 (2015).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본 20대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과정 연구. *가족과 문화*, 27(1), 69-116.
- 김의철, 박영신 (2008).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 (II).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63-109.
- 김종백, 김준엽 (2009). 학업 성취 관련 요인과 자아개념을 매개로한 부모의 교육기대와 학업관여가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중단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23(2), 389-412.
- 김홍석 (2013). 대학생의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상담학연구*, 14(2), 1165-1187.
- 김혜정, 백용매 (2006). 낙관성과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대학생의 우울과 생활 만족도에

-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7(3), 683-699.
- 나은영, 차재호 (1999). 1970 년대와 1990 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7-60.
- 남정민, 성현란, 권선영 (2014).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이 남·여 중 학생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147-170.
- 류승하 (1996). 부부의 갈등해소양식 변화에 미치는 의사소통 기술 훈련과 신념변화훈련의 효과.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 진로상담: 취업 준비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1), 417-435.
- 박선영, 조용주 (2011). 부모의 공감과 청소년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8(10), 35-63.
- 박아청 (1998). 과보호의 발달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일고찰. 인간발달연구, 5(1), 53-72.
-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안자영, 이임순 (2014). 자녀가 지각한 효도의 구성개념과 형성: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부모관계효능감이자녀의 효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8(3), 421-454.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2), 127-164.
- 박우현 (2017, 2, 15). [청년 체감실업률 22% 최악] 늘어나는 숨은 실업자...취업 장벽 더 높아져.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OC3SJVZ0E> 에서 검색.
- 서선희 (1998). 한국적 효 개념의 특수성. 한국 노년학, 18(3), 142-154.
- 서수균, 전지혜, 안정신, 정영숙 (2015). 중년부모와 대학생 자녀 간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34(4), 971-990.
- 손승영 (2009). 한국 가족의 청소년 자녀 사회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1), 57-84.
- 안창규 (2016, 11, 7). 연애·취업·인간관계·결혼·출산까지 포기 위기의 'N포 세대'에 희망을... 경북매일.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406> 에서 검색.
- 양명숙 (1996).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4(2), 167-181.
- 양혜경, 남인숙 (2012). 중산층 중, 고생 어머니의 자녀와의 갈등 및 의사소통에 관한 질적연구. 교육학 논총, 33(2), 1-17.
- 이민경 (2008). 대학생들의 교육경험 담론 분석-입시교육과 진로경험의 의미화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31, 79-102.
- 이상희 (2012).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 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와 부모진로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 연구, 13(3), 1461-1479.
- 이영미, 한재희 (2013). 모가 지각한 부모기대로 인한 부모-자녀 간 갈등극복경험. 상담학연구, 14(2), 1401-1422.
- 이희영, 최태진 (2004).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 활적응: 성별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중재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5(1), 109-136.
- 정미예, 조남근 (2015).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 긍정적 정서, 사회적 지지 및 삶의 만족의 구조적 분석. *상담학연구*, 16(2), 179-193.
- 정은영, 장성숙 (2008).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 개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93-312.
- 정은희 (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궁호 (1999). 문화유형에 따른 동기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33-273.
- 조궁호 (2012). *사회관계론의 동서비교*.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조명한,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차경호 (2001).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삶의 만족도. *청소년상담연구지*, 9(1), 7-26.
- 최상진, 김의철, 홍성운, 박영숙, 유승엽 (2000). 권위에 관한 한국인의 의식체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1), 69-84.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 변인의 관계 분석: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공부시간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6(1), 143-154.
- 통계청 (2017).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 보도자료. <http://kostat.go.kr> 에서 검색.
- 한성열 (2008). 한국문화의 맥락에서 본 교육의식: 한국사회에서 교육적 성취에 대한 심리학 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33-46.
- 한정아, 심홍섭 (2005). 대학생의 자아분화, 부정적 기분 조절 기대치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965-981.
- 황매향, 조효진, 조윤진, 방지원 (2013). 대학생의 일의 의미와 진로 결정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3), 675-699.
- Adler, F. (1956). The value concept in soci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2(3), 272-279.
- Agliata, A. K., & Renk, K. (2008). College students' adjustment: The role of parent - college student expectation discrepancies and communication reciproc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8), 967.
- Agliata, A. K., & Renk, K. (2009). College students' affective distress: The role of expectation discrepancies and communica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4), 396-411.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Arnett, J. J. (2006).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4), 1120-1136.
- Brehm, J. W. (1966). *A theory of psychological reactance*. Oxford, England: Academic Press.
- Bugental, D. B., & Grusec, J. E. (2006). Socialization processes. In W. Damon, R. M. Lerner,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366-428). Hoboken, NJ: Wiley.
- Chen, P. (1995). A study o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separation-individuation change in counseling. *Chine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8, 145-176.
- Choi, S. H. (1990). *Communicative socialization processes: Korea and Canad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Canada.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s*. Oxford, England: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Fingerman, K. L., Pitzer, L., Lefkowitz, E. S., Birditt, K. S., & Mroczek, D. (2008). Ambivalent relationship qualities between adults and their parents: Implications for the well-being of both partie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3(6), 362-371.
- Higgins, E. T. (1989). Self-discrepancy theory: What patterns of self beliefs cause people to suffer?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2, pp. 93-136). New York: Academic Press.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0-178.
- Hoffman, J. A., & Weiss, B. (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2), 157-163.
- Kernberg, O.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NY: Jason Aronson.
- Kim, U., & Choi, S. H. (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P. Greenfield & R. R. Cocking (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pp. 227 - 257). Hillsdale, NJ: Erlbaum.
- Kim, U., Yang, K. S., & Hwang, K. K. (2006). Contributions to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In: Kim U., Yang KS., Hwang KK. (eds.),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pp. 3-25). International and Cultural Psychology. Boston: Springer.
- Kins, E., Beyers, W.,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09). Patterns of home leav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 emerging adulthood: The role of motivational processes and parental autonomy support. *Developmental psychology*, 45(5), 1416-1429.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e Kise, Lee Soojung, & Yon Kyujin. (2017, August). 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

- Performance-Avoidance goal, and Career Decidedness in South Korea. *Poster presented at the 125<sup>th</sup> Annual Conference on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Washington, D.C.*
- Masterson, J. F. (1985). *The Real Self*. New York, NY: Brunner/Mazel.
- McGillicuddy-De Lisi, A. V. (1980). The role of parental beliefs in the family as a system of mutual influences. *Family relations*, 29(3), 317-323.
- Micucci, J. A. (2009). *The adolescent in family therapy: Harnessing the power of relationship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Millon, T. (1981). *Disorders and personality*. New York, NY: Wiley.
- Pavot W., Diener E. (2009).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In E. Diener (Eds), *Assessing Well-Being* (Vol. 39, pp. 101-117). Dordrecht: Springer.
- Schultheiss, D. E. P., Kress, H. M., Manzi, A. J., & Glasscock, J. M. J. (2001). Relational influences in career development: A qualitative inquir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9(2), 216-241.
- Wang, L. F., & Heppner, P. P. (2002). Assessing the impact of parental expectations and psychological distress on Taiwanese college studen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0(4), 582-608.

원 고 접 수 일 : 2017. 12. 02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2. 14

게 재 결 정 일 : 2018. 06. 04

**College students' experience of parental expectation  
who perceive not 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Dohyung Lee                      Yaeon Kim                      Soyoung You**  
**Myungsun Kim                      Mi Jeong Park                      Kyu Jin Yon**

Sogang University

The presented study aimed to understand how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in emerging adulthood perceive, experience, and react to parental expectations. Participants included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5th semester, or beyond, from Seoul, Korea. Among the 103 survey respondents who completed the 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 Inventory, those perceived they were not 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 (lower 30%) were selected as potential interviewees. Then, using scores from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8 participants from the low and high life satisfaction groups respectively, were selected for the semi-structured interview and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to explore each participants' experience of parental expectations. As a result, 4 domains (Parental Expectations, Parental Attitudes and Modes of Expression, Impacts and Reactions, and Coping Strategies) and 26 categories emerg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for assisting with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proces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f South Korean university students are discussed.

*Key words : emerging adulthood, parent-child relationship, 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 life satisfaction,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